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0~8/2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봉암사 동안거 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2	흔들릴 땐 마음수업	법상	모과나무
3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우리가 명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4	무비스님 신 금강경 강의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5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6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운주사
7	정토삼부경	석청화 / 문선우	불교서원
8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9	놓아버리기	아잔브람 / 혜안스님	궁리
10	도표로 읽는 명상입문	혜경 김명환 / 배종훈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1)	이철현 엮음	오색필통
2	홍차학개론	정영숙	차와문화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시골농부의 마음공부	김일문	운주사
5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6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탁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들숨 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초기불전 002)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10	유마경:유마의 불가사의한 이야기	혜원 강설	운주사

어지러운 마음 밝히는 사찰 주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수행 공간' 알리는 사찰 주련
대표작 100편 엄선해 번역·해설
전각마다 특색…순례하듯 배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대, 짧고 간결한 사찰 주련(柱聯)에 주목한 책이다. 주련은 시구(詩句)나 문장을 종이나 판자에 새겨 기둥[柱]에 잇달아[聯] 걸어둔 것을 말한다. SNS의 짧은 글귀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친숙한 형식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중 핵심만 가려 새긴 사찰 주련은 전각이 '수행하는 공간'임을 일깨워 준다. 각 법당에 모신 불보살님과 관련된 경전이나 어록을 인용해, 주련의 글귀 주제도 전각마다 다른다.

일례로 양산 통도사 일주문 석주에는 "가사를 입고 삭발하였으니 언제나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구절이, 합천 해인사 해탈문 주련에는 "팔만사천 법문은 보살의 십지(十地)를 높이 뛰어넘는다"는 설호 스님의 게송이,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 주련에는 "진신사리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 수많은 중생에게 예배를 쉬지 않게 한다"는 〈석문의범〉 '대예참례' 경구가 새겨져 있다.

또 영주 비로사 적광전 주련에는 "만약 이 자리는 같음도 다름도 아님을 안다면 곧 시방에 두루한 화엄세계다"(〈간화결의론〉), 예산 화엄사 약사전 주련에는 "범부는 전도망상으로 병의 뿌리가 깊어서 약사여래를 만나지 못하면 죄업을 소멸하기 어렵다"(〈석문의범〉 '약사청')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처럼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주련이지만 일반인들의 눈길이 가닿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한문인데다 흘림체로 쓴 경우가 많고,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라도 경전의 맥락을 모른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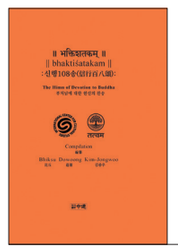
주련이 걸린 통도사 금강계단.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순례 전문가인 목경찬 교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에서 주련을 실마리 삼아 불교 이야기를 들려준다. 먼저 우리나라 사찰 주련 수백 편을 모은 뒤, 반복해서 보이거나 법문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100편을 추렸다. 각 주련은 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왕문, 범종각을 거쳐 대웅전, 극락전, 지장전, 칠성각, 대중방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공간 구조에 따라 배열한 후, 원문을 우리말로 풀고 해당 경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주련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관 스님의 게송이 새겨져 있다. 저자는 "'마음에서 마음에 전하는 법이 그 무슨 법인가?'라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이것'이라고만 한 것은, 부처님과 조사가 전하는 것은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굳이 이름하자면 한 물건, 한마음, 불성, 진여 등"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보고 나면 주련을 통해 사찰 순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천 년 전 '찬불 시(詩)' 국내 첫 번역



신행 108송
도웅 스님 편역
한국범어연구원 기획
도서출판 중도
2만5000원

힌두교 학자의 삼보 귀의 '찬송가'
"범어 아름다움·불법 숭고함 노래"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며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에 지혜가 있거나 없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세존에게 예경합니다." –'샤르둘라위끄리디땀' 중에서

찬불가의 고전이자 인도와 남방불교 전통을 아우르는 불교 송가 〈신행 108송(頌)〉이 도웅 스님(한국범어연구원장)의 편역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신행 108송'은 12세기경 인도 벵갈 지역의 힌두교 학자 빤딛 라마짠뜨라 바라띠가 찬술한 것으로, 그는 스리랑카에서 승왕 라훌라 존자에게 삼장(三藏)을 배우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체득한 뒤 삼보에 귀의하며 이 시를 지었다. 특히 108편의 시편은 12가지 전통 운율로 지어져, 독송할 때 범어의 아름다운 리듬과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책에는 시 원문과 한글 번역, 독송을 위한 악보와 운율 해설, 간략한 범어 읽는 법까지 실어 찬불 문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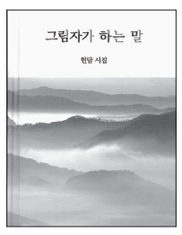
도웅 스님은 "'신행 108송'은 한 지식인이 법문을 듣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 깊은 여정의 기록이자, 학문적 논리와 수행의 체험, 시인의 감성과 범어 문학의 정수가 어우러진 대작"이라며 "이 찬가를 통해 범어의 아름다움과 부처님 가르침의 숭고함을 함께 전하고 싶었다"고 번역을 맡은 이유를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신행 108송〉은 단지 한 권의 번역서를 넘어 깊은 신심과 교화를 메시지를 담은 찬송의 시"라며 "이 귀중한 찬송시가 널리 유통되어 불자들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도웅 스님은 1966년 은해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중국불교연구원과 왕립대리석사원학원을 수료했다. 1992년 인도 바라나시에 한국 사찰 녹야원을 창건했으며 2012년 한국범어연구원을 설립했다.

새로 나온 책

생명의 자각을 노래하다



그림자가 하는 말
현담 스님 시집
기적의 마을책방
1만8000원

"삼계화택 세계가 다 타들어 가는데/ 누구 하나 불끄는 사람들 없다/ 참 대책 없는 동네다 / 참 대책 없는 세월이다" –시 '119' 중에서

1978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현담 스님이 새 시집 〈그림자가 하는 말〉을 통해 인공지능의 시대, 생명으로 깨어나는 '자각'을 노래한다. 스님은 "지금의 분쟁과 광기들은 수행을 방기한 탓"이라며 "오직 공성이고 허망한 생명들은 육바라밀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욕락을 버리고 선업을 다시 찾자"고 당부한다.

현담 스님은 시집 〈햇살의 숲〉, 〈사랑이 오고 있다〉 등을 펴냈으며 현재 대구 청련암에 머물며 시작을 이어가고 있다.

경전으로 피어난 그림



바람난 부처님
동인 스님 그림
법진 스님 기획
솔과학
5만원

"그림이 수행이라면, 이 책은 한 권의 경전이다."
–황중환 교수(조선대 미술대학)

동인 스님이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불보살의 모습을 그린 작품 310점을 가려 담은 책이다. 동인 스님은 1976년 출가해 현재 지리산 토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책을 기획한 법진 스님은 "스님의 그림은 틀에 박힌 고정된 불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며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는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말한다. 박종갑 경희대 미술대학장은 "스님의 그림은 빛으로 드러나는 무상의 가르침"이라는 감상평을 밝혔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도(道)'



부모은중경
김현준 편역
효림
5000원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펴내는 한글 독송용 경전 시리즈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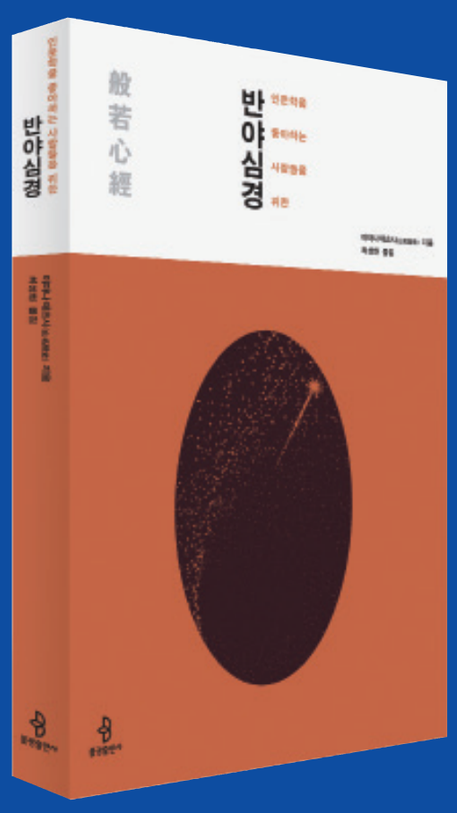
〈부모은중경〉은 원본과 번역자가 알려지지 않아 위경(僞經)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에서 널리 읽히는 경전이다.

책에는 한글 번역과 함께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용주사 동판본의 변상도를 실었다. 경문을 읽기 전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자세히 알려 준다.

김현준 원장은 "지극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가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도(道)'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 좋은 인연으로, 마침내 깨달음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문학 vs 과학 지혜의 깊이를 두 배로 경험하는 특별한 독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붓다가 찾았던 것은 철학도 학문도 아닌 행복의 노하우였다"

1991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아마존 스테디셀러!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반야심경》 해설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고전 《반야심경》
260자에 담긴 붓다의 행복론을 듣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야마나 테츠시 지음 | 최성현 옮김 | 176쪽 | 14,000원

"우리가 사는 우주는 《반야심경》의 세계관이다!"

읽기만 해도 걱정이 사라지는 《반야심경》
물리학자가 밝혀낸 경전 속 과학의 원리

NASA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천체물리학자가 찾은 평온한 삶의 공식!

과학과 불교의 만남, 그 접점에서 발견한 삶을 밝혀주는 별빛 같은 지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사지 하루오 지음 | 주성원 옮김 | 240쪽 | 18,000원